KOREAN J. FOOD CULTURE
Vol. 20, No. 5(2005) pp. 525~531

서울, 경남 일부지역 가공식품 표시기준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주나미 · 윤지영* · 김옥선 · 고영주 · 정현아 · 최은영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전공, 국립경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005년 7월 20일 접수)

A Survey on the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Food Labeling System in Seoul and Geongsangnamdo Area

Nami Joo, Jiyoung Yoon*, Oksun Kim, Youngjoo Ko, Hyeona Jung, and Eunyoung Choi
Deparetment of Food and Nutri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paretment of Food and Nutri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July 20, 2005)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consumer-centric food labeling system by investigating usage state, importance evaluation, problems and satisfaction, etc. on the current food labeling system by consumer. For usage state of checking the food label, 50.2% of respondents were replied "mostly check the label", and they were indic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on 'education level($p<.05$)', and in case of married respondents, most were relied "absolutely check the label", For the reason to check the food label, 61.8% of respondents were replied "to determine whether it is stable or not", and they were indic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on age($p<.01$), marital status($p<.01$), and job($p<.01$). For the item considered as important things on the label of the whole food, 49.8% of respondents were replied that "expiration and manufacture date is important", and they were indicated a significant difference($p<.001$) on age, marital status, job. For item considered as important things on the label of each food, it was indicated that they considered food company as important thing in case of snack, soft drink, edible oils, and noodles, and food company in case of ice cream, and expiration and manufacture date in case of milk product and meat product. For the problems on the current food labeling system, the clauses "Poor marking on food additives and materials contents" and "untrue marking of nutrition contents" were indic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on age($p<0.05$, $p<0.001$), and the clause "untrue marking of nutrition contents" were indic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on marital status($p<.01$) and job($p<.01$).

Key Words : current food labeling, consumer, satisfaction

I. 서 론

식품가공 기술의 발달, 도시화와 산업화에 의한 가공식품의 소비 증가, 국가 간 교역 활성화에 의한 수입식품의 대량 유통 등에 따라 소비자는 다양한 식품을 접하게 되었으나 현명한 식품 선택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1]. 또한 식품은 다른 공산품이나 서비스와는 달리 단순 소비재의 차원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생존 및 건강에 직접적이고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재화이므로 표시 · 유통 · 보관상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유통 구조의 복잡성과 생산과정의 불가시성 때문에 허위표시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에는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가진 정보와 소비자의 지식 · 정보 사이에 큰 차이가 있게 되므로 소비자의 적절한 식품 선택 및 구매를 위해서는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로부터의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2,3].

식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 공급원은 식품표시로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4]. 식품 포장지나 포장 용기에 표기해야 하는 식품위생법상의 품목별 공통 표시기준 항목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영업허가(신고)번호 및 품목제조허가(신고)번호, 중량 · 용량 또는 개수, 원재료 및 함량, 보관상 주의사항, 반품 또는 교환, 사용 또는 보존기준, 자가기준 및 규격인정 제품, 열량 및 영양분 표시 등과 같은 정보이며[5], 이들은 식품에 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공정한 경

교신저자: Ok-Sun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ungpa-Dong 2-Ka, Yonsan-Ku, Seoul 140-742, Korea Tel : 82-2-710-9471 Fax : 82-2-710-9479
E-mail : okboog@hanmail.net

쟁 확보 등의 목적을 위해 표기하고 있다[6].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식품표시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련법이나 규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술 경고문구 표시범위 논란,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화 공방, 식품영양성분표시 도입과 같은 식품 표시에 관련 문제들이 빈발하고 있고, 유통기한 연장에 대한 한·미간 식품유통 마찰, 식품시장 개방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복지부도 식품위생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여 1996년 1월부터 공포·시행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품질 표시 제도를 바탕으로 소비자 중심적 표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7,8].

그러나 식품표시가 정보제공원으로서 역할 외에 식품의 위생적 취급, 건전한 식품의 유통, 공정한 경쟁 확보, 식중독 발생 시 근거자료 등의 역할을 위해 제공 된다고 할지라도 소비자들이 표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표시제도는 시장에서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현행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사용정도 및 표시제도에 대한 신뢰수준과 만족도를 검토하여 식품표시의 실용성과 구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소비자 중심적 식품표시 정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식품 구매의 주체인 20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4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 총 350부(회수율 70%)를 회수하였으나, 이 중 무응답이 많거나 불성실한 자료 34부를 제외한 31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질문내용은 선행연구[9-11]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작성하였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식품표시에 대한 이용실태, 식품 표시의 중요도 평가수준, 문제점 및 만족도 등 크게 5가지 영역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처리 및 분석

조사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을 하였다. 자료는 문항에 따라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조사결과 일반사항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차이는 χ^2-test, t-test, F-test를 수행하였고, 분산분석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경우, 어느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고자 Duncan's multiple range를 통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0~29세 40.7%, 30~39세 29.3%, 40~49세 12.9%, 50대 이상이 17%였고, 59.3%가 기혼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상자의 83%가 핵가족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42%, 학생이 32.5%, 전문직이 16.4%였으며,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이상이 4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상이 20.8%로 학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월수입은 응답자의 77%가 150~300만원 미만으로 2004년 4분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이 290만원[12]인 것에 비하여 조사대상자의 가계소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 식품표시 이용정도

식품 구입 시 식품표시를 이용하는 정도는 〈Table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대부분 확인한다'가 응답자의 50.2%, '반드시 확인한다'가 42.9%로서 응답자 대부분이 식품 구매 시 확인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박 등[13]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haracteristics	N (%)
Age	20~29	129(40.7)
	30~39	93(29.3)
	40~49	41(12.9)
	Over 50	54(17.0)
Marital status	Married	188(59.3)
	Not married	129(40.7)
Family size	Small family	263(83.0)
	Large family	31(9.8)
	Support oneself	23(7.3)
Job	Students & etc.	103(32.5)
	Professional & managemental	52(16.4)
	Housekeeper	133(42.0)
	Manufacturing	15(4.7)
	Sales & Service	14(4.4)
Education level	Graduated high school	66(20.8)
	Graduated college	25(7.9)
	Graduated university	147(46.4)
	Graduate school	17(5.4)
	Etc.	62(19.6)
Monthly income (10,000won)	Under 150	109(34.4)
	150~200	38(12.0)
	200~250	56(17.7)
	250~300	41(12.9)
	Over 300	73(23.0)
Total		317(100.0)

<Table 2> Checking the Food labels at the time of purchasing N(%)

Factors		Never check the label	Mostly check the label	Absolutely check the label	Total	χ^2
Age	20~29	11(8.5)	70(54.3)	48(37.2)	129(40.7)	6.35
	30~39	5(5.4)	47(50.5)	41(44.1)	93(29.3)	
	40~49	1(2.4)	21(51.2)	19(46.3)	41(12.9)	
	Over 50	5(9.3)	21(38.9)	28(51.9)	54(17.0)	
Marital status	Married	10(5.3)	88(46.8)	90(47.9)	188(59.3)	5.44
	Not married	12(9.3)	71(55.0)	46(35.7)	129(40.7)	
Family size	Small family	16(6.1)	130(49.4)	117(44.5)	263(83.0)	5.25
	Large family	2(6.5)	18(58.1)	11(35.3)	31(9.8)	
	Support oneself	4(17.4)	11(47.8)	8(34.8)	23(7.3)	
Job	Students & etc.	9(8.7)	56(54.4)	38(36.9)	103(32.5)	10.77
	Professional & managemental	2(3.8)	26(50.0)	24(46.2)	52(16.4)	
	Housekeeper	6(4.5)	67(50.4)	60(45.1)	133(42.0)	
	Manufacturing	2(13.3)	5(33.3)	8(53.3)	15(4.7)	
	Sales & Service	3(21.4)	5(35.7)	6(42.9)	14(4.4)	
Education level	Graduated high school	5(7.6)	42(63.6)	19(28.8)	66(20.8)	18.40*
	Graduated college	4(16.0)	11(44.0)	10(40.0)	25(7.9)	
	Graduated university	5(3.4)	71(48.3)	71(48.3)	147(46.4)	
	Graduate school	0(0.0)	7(41.2)	10(58.8)	17(5.4)	
	Etc.	8(12.9)	28(45.2)	26(41.9)	62(19.6)	
Monthly income (10,000won)	Under 150	8(7.3)	50(45.9)	51(46.8)	109(34.4)	8.80
	150~200	2(5.3)	24(63.2)	12(31.6)	38(12.0)	
	200~250	4(7.1)	34(60.7)	18(32.1)	56(17.7)	
	250~300	3(7.3)	21(51.2)	17(41.5)	41(12.9)	
	Over 300	5(6.8)	30(41.1)	38(52.1)	73(23.0)	
Total		22(6.9)	159(50.2)	136(42.9)	317(100)	

* p<.05, ** p<.01, *** p<.001

69.2%가 식품표시를 확인한다고 보고했으며, 김 등[14]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87.8%가 식품표시를 확인한다고 하였다. Schrayer[18]는 젊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고학력 일수록 식품표시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식품표시를 이용하는 정도는 결혼상태와 교육정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기혼은 미혼에 비해 '반드시 확인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박과 민[19]의 연구에서도 기혼이 미혼인 경우보다 식품표시 이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한 응답자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와 '대부분 확인한다' 가 각각 48.3%로 조사되었고, 고등학교 졸업보다 대학교($p<.05$) 졸업한 소비자들이 식품표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식품표시를 이용하는 이유

식품표시를 이용하는 이유는 〈Table 3〉과 〈Fig. 1〉에 나타내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61.8%가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22.8%가 '영양정보를 얻기 위해서' 라고 응답하였으며, 김 등[14]의 연구에서도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 61.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임과 김[6]의 연구에서 경기도 북부지역 여성 소비자의 91.9%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시사항을 읽는다고 응답하여 식품 구매 시 안전성 확인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령($p<.01$)과 결혼상태($p<.01$), 직업($p<.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모든 연령, 기혼과 미혼, 직업부분에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식품표시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그러나 확대가족, 핵가족 등 가족구성원에 따른 식품표시 이용 이유는 '영양정보를 얻기 위해서' 에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렇게 조사대상자들이 영양정보를 구하기보다는 안전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 국산 가공식품에 영양표시가 현재 일부 제품에만 국한되어 있고, 특정 성분의 첨가 및 삭제에 관한 강조문구로만 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영양정보 표시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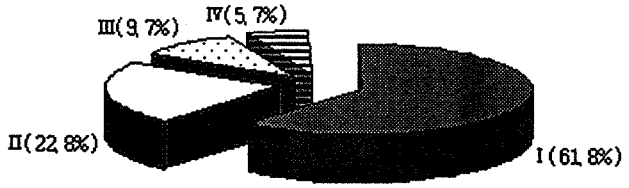
4. 식품표시의 중요도 평가수준

식품 구입 시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품표시 내용은 〈Table 4〉와 같다. 응답자들은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을 가장 중요한 표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이 제조회사명, 가격, 원료 및 첨가물 순으로 조사되었다. 권[15]과 김[16]의 연구에서도 식품포장상의 여러 표시사항 중에서 제조년월일을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남17)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식품에 대한 구매결정을 하거나 보관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표시사항인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 제품명, 가격, 보관상 유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표시되

<Table 3> Reasons for checking the food labels N(%)

	Factors	To determine whether it is stable or not	To obtain nutrient information	To compare with other products	To purchase new food	Total	χ^2
Age	20~29	62(48.1)	42(32.6)	15(11.6)	10(7.8)	129(40.7)	24.59**
	30~39	73(78.5)	9(9.7)	8(8.6)	3(3.2)	93(29.3)	
	40~49	28(68.3)	9(22.0)	2(4.9)	2(4.9)	41(12.9)	
	Over 50	33(61.1)	12(22.2)	6(11.1)	3(5.6)	54(17.0)	
Marital status	Married	133(70.7)	29(15.4)	17(9.0)	9(4.8)	188(59.3)	17.64**
	Not married	63(48.8)	43(33.3)	14(10.9)	9(7.0)	129(4.1)	
Family size	Small family	54(20.5)	171(65.0)	13(4.9)	25(9.5)	263(83.0)	3.75
	Large family	10(33.3)	15(48.4)	3(9.7)	3(9.7)	31(9.8)	
	Support oneself	8(34.8)	10(43.5)	2(8.7)	3(13.0)	23(7.3)	
Job	Students & etc.	44(42.7)	38(36.9)	12(11.7)	9(8.7)	103(32.5)	33.89**
	Professional & managemental	34(65.4)	7(13.5)	8(15.4)	3(5.8)	52(16.4)	
	Housekeeper	98(73.7)	20(15.0)	10(7.5)	5(3.8)	133(42.0)	
	Manufacturing	12(80.0)	2(13.3)	0(0.0)	1(6.7)	15(4.7)	
	Sales & Service	8(57.1)	5(35.7)	1(7.1)	0(0.0)	14(4.4)	
Education level	Graduated high school	36(54.5)	18(27.3)	9(13.6)	3(4.5)	66(20.8)	19.09
	Graduated college	16(64.0)	3(12.0)	2(8.0)	4(16.0)	25(7.9)	
	Graduated university	100(68.0)	31(21.1)	11(7.5)	5(3.4)	147(46.4)	
	Graduate school	10(58.8)	3(17.6)	4(23.5)	0(0.0)	17(5.4)	
	Etc.	34(54.8)	17(27.4)	5(8.1)	6(9.7)	62(19.6)	
Monthly income (10,000 won)	Under 150	70(64.2)	21(19.3)	13(11.9)	5(4.6)	109(34.4)	10.88
	150~200	21(55.3)	11(28.9)	5(13.2)	1(2.6)	38(12.0)	
	200~250	32(57.1)	13(23.2)	5(8.9)	6(10.7)	56(17.7)	
	250~300	29(70.7)	9(22.0)	3(7.3)	0(0.0)	41(12.9)	
	Over 300	44(60.3)	18(24.7)	5(6.8)	6(8.2)	73(23.0)	
Total		196(61.8)	72(22.7)	31(9.8)	18(5.7)	317(100.0)	

* p<.05, ** p<.01, *** p<.001



<Fig. 1> Reasons for checking food labels

I: to determine whether it is stable or not.
II: to obtain nutrient information.
III: to compare with other products.
IV: to purchase new food.

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결혼상태, 직업에서 식품구입 시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시내용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5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군에서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번째로 중요한 식품표시 사항은 제조회사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9세 연령에서는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 다음으로 가격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결혼상태와 직업에서도 기혼과 미혼 모두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업에서도 전문직과 경영을 하는 직업을 가진 응답자만이 식품 구입 시 제조회사명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른 직업에서는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가 식품 품목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품표시 내용은 〈Fig. 2〉와 같다. 과자 및 씨리얼(40.2%), 음료(35.1%), 식용유지류(35.2%) 및 면류(38.8%)는 제조회사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시사항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은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 가격 순으로 조사되었다. 아이스크림류의 경우 제조회사명(39.8%), 원료첨가물(20.1%)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우유 및 유가공품과 육가공품에서는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70.6%), 제조회사명(16.4%)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식품의 안전성 확인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임 등[10]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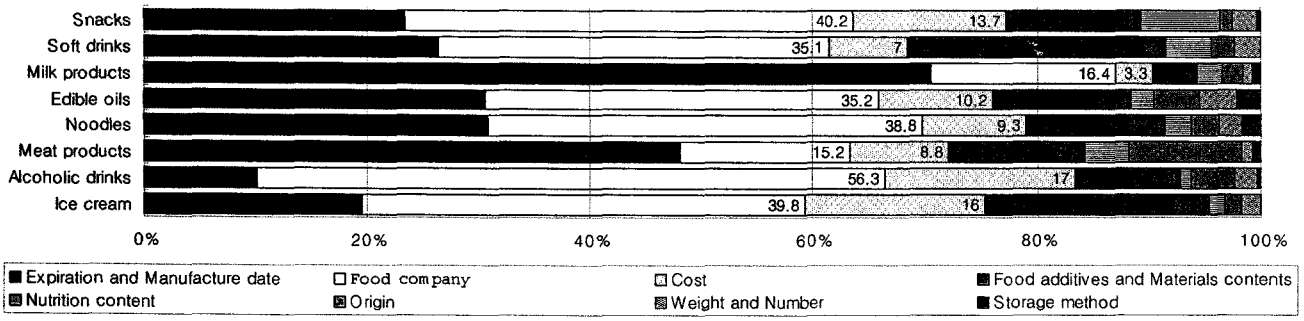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 표시는 식품 구입 시 식품의 안전도 및 신선도를 나타내주는 자료로서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영양성분표시, 식품 보관 시 주의사항, 반품 및 교환장소, 영업허가 신고번호,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의 중요도 수준은 매우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거나 보관하는 것과 직접 연관된 사항이 아니고 영양성분표시의 경우 현행 식품에서 영양표시가 극히 일부 식품에만 행해지고 있어 낮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Most important item of the food labels

N(%)

	Factors	Expiration & Manufacture date	Food company	Price	Food additives & Materials contents	Nutrition content Number	Origin and	Weight method	Storage	Total	χ^2
Age	20~29	70(59.8)	11(9.7)	24(20.5)	5(4.3)	5(4.3)	0(0.0)	1(0.9)	1(0.9)	117(44.5)	55.83***
	30~39	37(42.5)	34(39.1)	8(9.2)	7(8.0)	0(0.0)	1(1.1)	0(0.0)	0(0.0)	87(33.1)	
	40~49	16(55.2)	8(27.6)	0(0.0)	4(13.8)	0(0.0)	1(3.4)	0(0.0)	0(0.0)	29(11.0)	
	Over 50	8(26.7)	14(46.7)	3(10.0)	4(13.3)	1(3.3)	0(0.0)	0(0.0)	0(0.0)	30(11.4)	
Marital status	Married	67(45.0)	54(36.2)	12(8.1)	14(9.4)	1(0.7)	1(0.7)	0(0.0)	0(0.0)	149(56.7)	32.40***
	Not married	64(56.1)	13(11.4)	23(20.2)	6(5.3)	5(4.4)	1(0.9)	1(0.9)	1(0.9)	114(43.3)	
Family size	Small family	111(50.5)	58(26.4)	28(26.3)	16(7.3)	3(1.4)	2(0.9)	1(0.5)	1(0.5)	220(83.7)	13.29
	Large family	12(50.0)	7(29.2)	2(8.3)	1(4.2)	2(8.3)	0(0.0)	0(0.0)	0(0.0)	24(9.1)	
	Support oneself	8(42.1)	2(10.5)	5(12.7)	3(15.8)	1(5.3)	0(0.0)	0(0.0)	0(0.0)	19(7.2)	
Job	Students & etc.	59(60.8)	6(6.2)	22(8.4)	4(4.1)	4(4.1)	0(0.0)	1(1.0)	1(1.0)	97(36.2)	54.83***
	Professional & managemental	14(37.8)	17(45.9)	2(5.4)	3(8.1)	1(2.7)	0(0.0)	0(0.0)	0(0.0)	37(14.1)	
	Housekeeper	47(43.9)	38(35.5)	8(7.5)	11(10.3)	1(0.9)	2(1.9)	0(0.0)	0(0.0)	107(40.7)	
	Manufacturing	4(40.0)	3(30.0)	1(10.0)	2(20.0)	0(0.0)	0(0.0)	0(0.0)	0(0.0)	10(3.8)	
	Sales & Service	7(58.3)	3(25.0)	2(16.7)	0(0.0)	0(0.0)	0(0.0)	0(0.0)	0(0.0)	12(4.6)	
Education level	Graduated high school	29(51.8)	14(25.0)	8(14.3)	3(5.4)	0(0.0)	0(0.0)	0(0.0)	1(1.8)	56(21.3)	28.67
	Graduated college	6(30.0)	9(45.0)	4(20.0)	0(0.0)	1(5.0)	0(0.0)	0(0.0)	0(0.0)	20(7.6)	
	Graduated university	59(51.3)	33(28.7)	9(7.8)	9(7.8)	3(2.6)	1(0.9)	1(0.9)	0(0.0)	115(43.7)	
	Graduate school	6(37.5)	5(31.3)	3(18.8)	2(12.5)	0(0.0)	0(0.0)	0(0.0)	0(0.0)	16(6.1)	
	Etc.	31(55.4)	6(10.7)	11(19.6)	6(10.7)	2(3.6)	0(0.0)	0(0.0)	0(0.0)	56(21.3)	
Monthly income (10,000 won)	Under 150	39(50.0)	22(28.2)	7(9.1)	7(9.0)	1(1.3)	1(1.3)	0(0.0)	1(1.3)	78(29.7)	29.95
	150~200	14(46.7)	10(33.3)	2(6.7)	2(6.7)	1(3.3)	0(0.0)	1(3.3)	0(0.0)	30(11.4)	
	200~250	30(11.4)	6(12.2)	8(16.3)	3(6.1)	1(2.0)	1(2.0)	0(0.0)	0(0.0)	49(18.6)	
	250~300	19(50.0)	10(26.3)	4(10.5)	5(13.2)	0(0.0)	0(0.0)	0(0.0)	0(0.0)	38(14.4)	
	Over 300	29(42.6)	19(27.9)	14(20.6)	3(4.4)	3(4.4)	0(0.0)	0(0.0)	0(0.0)	68(25.9)	
	Total	131(49.8)	67(25.5)	35(13.3)	20(7.6)	6(2.3)	2(0.8)	1(0.4)	1(0.4)	263(100.0)	

* p<.05, ** p<.01, *** p<.001



<Fig. 2> Item considered as important things on the label of each food at the time of purchasing

5. 식품표시 사항에 대한 문제점

식품표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5점척도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원산지 표기 미흡' 부분은 연령이 많을수록, 또한 기혼과 전문직 종사자들에 의해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사용된 원재료와 첨가물의 기재 미흡' 부분과 연령($p<.05$)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30~39세 연령대와 미혼, 판매와 서비스군에 종사하는 소비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는 50대 이상 연령과 기혼, 제조업 종사자들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허위 또는 과대영양 성분표시'와 연령($p<.001$), 결혼상태($p<.01$), 직업($p<.01$)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20~29세 연령과 미혼, 학생일수록 '허위 또는 과대영양 성분표시'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알아보기 어려움' 부분에 대하여 50대와 기혼, 제조업 종사자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6. 식품표시 사항에 대한 만족도

식품표시 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알고 싶은 사항이다'와 '표시내용을 이해하기 쉽다'에 대해서는 50대 연령과 기

<Table 5> Consumer's perceived problems of the current food labeling system

Mean±S.D

Variables		Insufficient marking of origin	Food additives & materials contents	Forgery of expiration & manufacture date	Untrue marking of nutrition contents	Can't understand
Age	20~29	3.18±0.85	3.41±0.90[b1)]	3.23±0.95	3.64±0.89[c]	3.19±1.05
	30~39	3.29±0.79	3.44±0.90[b]	3.14±0.92	3.26±0.97[b]	3.43±0.98
	40~49	3.32±0.82	3.05±1.00[a]	3.00±1.00	2.80±1.05[a]	3.27±0.96
	Over 50	3.39±0.71	3.15±0.86[ab]	3.31±1.01	3.31±1.11[bc]	3.44±1.01
	F value	1.01	2.87*	1.03	8.44***	1.35
Marital status	Married	3.33±0.79	3.31±0.91	3.21±0.93	3.21±1.06	3.39±0.98
	Not married	3.17±0.83	3.36±0.91	3.16±0.98	3.60±0.88	3.20±1.04
	t value	1.73	-0.46	0.41	-3.43**	1.67
Job	Students & etc.	3.12±0.80	3.38±0.86	3.22±0.95	3.66±0.84	3.29±1.07
	Professional & managemental	3.40±0.90	3.33±1.02	3.23±0.94	3.38±1.16	3.23±0.98
	Housekeeper	3.32±0.79	3.29±0.93	3.11±0.96	3.14±1.00	3.40±0.98
	Manufacturing	3.27±0.60	3.13±0.84	3.60±0.74	3.20±1.14	3.53±0.92
	Sales & Service	3.36±0.84	3.50±0.86	3.14±1.03	3.43±1.09	2.79±0.89
	F value	1.442	0.422	1.030	4.091**	1.477
Total		3.26±0.81	3.33±0.91	3.19±0.95	3.37±1.01	3.32±1.01

1)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at p<.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5, ** p<.01, *** p<.001
Descriptors:5:-1:

<Table 6> Consumer's satisfaction for the current food labeling system

Mean±S.D

Variables		Offer the desirable informations	Reliable	Understand the labels	Helpful for food choice
Age	20~29	3.13±0.87	3.25±0.89	3.02±0.86	3.24±0.86
	30~39	3.19±0.85	3.20±0.82	3.02±0.92	3.37±0.83
	40~49	2.85±0.91	2.95±0.77	3.02±0.82	3.07±0.76
	Over 50	3.22±0.72	3.26±0.71	3.20±0.83	3.06±0.92
	F value	1.88	1.48	0.67	2.03
Marital status	Married	3.13±0.83	3.19±0.80	3.07±0.90	3.23±0.86
	Not married	3.12±0.87	3.22±0.87	3.02±0.84	3.22±0.84
	t value	0.09	-0.33	0.46	0.12
Job	Students & etc.	3.18±0.88	3.26±0.90	2.93±0.87	3.17±0.83
	Professional & managemental	2.92±0.81	3.20±0.78	3.10±0.78	3.10±0.80
	Housekeeper	3.18±0.90	3.17±0.81	3.11±0.91	3.35±0.85
	Manufacturing	3.33±0.90	3.31±0.64	3.33±0.82	2.87±0.99
	Sales & Service	2.79±0.89	3.00±0.88	2.93±0.99	3.29±0.91
	F value	1.838	0.409	1.102	1.756
Total		3.13±0.84	3.20±0.83	3.05±0.87	3.22±0.85

Descriptors:5:-1:

혼, 제조업 종사자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재사항을 믿는다'에서는 50대 연령과 미혼, 제조업 종사자들이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여, 남[17]의 연구에서 식품표시 내용에 대하여 59%가 '믿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응답하고, 표시내용의 역할이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제조업자의 광고역할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는 결과와 비교할 때 소비자들이 식품표시사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읽고 난후 식품선택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은 30대 연령과 기혼자, 주부들이 긍정적인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IV. 요약 및 결론

소비자 중심적인 식품표시 정착과 식품구매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행 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이용실태, 식품표시의 중요도 평가, 문제점 및 만족도 등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40.7%는 20~29세, 32.5%가 30~39세로 조사되었으며, 결혼상태에서 기혼은 59.3%, 직업은 전업주부가 42%, 학생이 32.5%로 조사되었다. 83%가 핵가족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이상이 46.4%로 조사되었다.

2. 일반사항에 대한 식품표시 이용정도는 '대부분 확인한다'

가 응답자의 50.2%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p<.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기혼일수록 '반드시 확인한다'는 응답자가 많았고, 대졸이상의 교육수준에서 식품표시 이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식품표시를 이용하는 이유는 61.8%가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22.8%가 '영양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식품표시를 이용하는 이유와 연령($p<.01$), 결혼상태($p<.01$), 직업($p<.01$)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과 기혼과 미혼, 직업군에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식품표시를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4. 식품표시의 중요도 평가수준에서 응답자들의 49.8%가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이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사대상($p<.001$)를 보였다. 조사대상자가 식품 품목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품표시 내용은 과자 및 씨리얼, 음료, 식용유지류 및 면류는 제조회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다음으로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 가격 순으로 조사되었다.

5. 식품표시 사항에 문제점은 '사용된 원재료와 첨가물의 기재 미흡'과 '허위 또는 과대영양 성분표시'는 각각 응답자의 연령($p<.05$, $p<.001$)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제조년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는 50대와 기혼, 제조업 종사자들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허위 또는 과대영양 성분표시' 문항과 연령($p<.001$), 결혼상태($p<.01$), 직업($p<.01$)과의 사이에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6. 식품표시 사항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 결혼상태, 직업 모두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지 않았으며 유의적인 차이도 없었다. 또한 표시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없어서 기재된 정보를 전적으로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따라서 식품표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만족을 통한 구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며 식품표시 내용이 제조회사, 식품의 광고 등과 같은 생산자 중심 정보 제공에서 소비자 중심 정보로 정확한 표시의 제공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향후 영양표시 인식에 대한 교육과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Lee, KA and Kim, HS: Effects of Consumer Education on Food Labels, *Korean J. Soc. Food Cookery Sci*, 18(5): 482-486, 2002
2) Lee, KH and Yeo, JS: Analysis of Consumer Behavior on Using Food Label, *Korean home economic association*, 34(5): 235-247, 1996
3) 이경희, 여정성: 소비자 지향적 식품표시에 관한 연구, 식품과학과 산업, 30(2): 77-82, 1997
4) 식품위생법규교재 편찬위원회: 식품의 위생법규, 광문각, p.54, 1997
5) 노영화: 식품안전지키는 『식품표시』, 소비자시대, 7: 52-53, 2000
6) Marks, L: What's in label? Consumers, public policy and food label, Food Policy, 252-258, 1984
7) 손혜숙, 장유경: 식품의 영양표시 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이해, 식품과학과 산업, 30(2): 69-76, 1997
8) 이경애: 외국의 식품표시제도-일본의 식품표시 제도를 중심으로, 제2차 식품표시제도 확립을 위한 워크숍, 6-7, 1998
9) Park, HR and Min, YH: A basic research for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nutrition labeling with reference to the consumer awareness. *J. Korean Soc. Food Sci. Nutr.*, 10: 155-166, 1995
10) Im, HS and Kim, HS: Utilization of the current food labeling system of processed foods and awareness on nutrition labeling among middle school female teachers. *J. Korean Soc. Food Sci. Nutr.*, 27: 765-774, 1998
11) Im, HS and Kim, HS: Awareness of nutrition labeling by female consumers in north area of Kyonggido. *J.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5: 173-185, 1996
12) www.nso.go.kr(통계청): 2004년 4분기 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13) Park, HR and Min, YH and Jung, HR: A basic research for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nutrition labeling(II), comparative perceptions of consumers, producers and government officials. *Korean J. Dietary Culture*, 10: 155-166, 1995
14) Kim, HS and Baik, SJ and Lee, KA: Consumers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Food Labels, *J. Korean Soc. Food Sci. Nutr.*, 28(4): 948-953, 1999
15) 권자숙: 수입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정보요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5
16) 김경희: 현행 식품의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반응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4
17) 남상덕: 소비자주의에 입각한 식품의 표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87
18) Schrayer, D. U. Food Technology 32: 42, 1978
19) Park, HR and Min, YH and Jung, HR: A basic research for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nutrition labeling: With reference to the consumer awareness. *Korean J. Dietary Culture*, 10(3): 155-166, 1995